

상조업체 줄었지만 가입자 늘었다

6개월새 18곳 폐업 9월까지 168곳...2년째 신규등록 없어 회원수 올 19만명 늘어 502만명...호남권 12개 업체 운영

올들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의 가입자(회원)가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지만 업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수는 같은 해 상반기(3월말 기준)보다 18개가 감소한 168개사로 집계됐다. 2015년 7월 이후부터 올 9월말까지 신규등록 업체는 한 곳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났다. 부도 폐업한 1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가입자 수 500명 안팎인데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입회원 수는 올 상반기보다 19만명 증가한 502만명이다. 가입자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4.6%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6%(420만명)를 차지한다. 또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1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168개사 중 절반이 넘는 91개(55.5%) 업체가 수도권에, 43개(26.

2%) 업체가 영남권에 있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은 12개업체로 7.1%에 불과했다.

선수금 규모는 올 상반기보다 2581억원 증가한 4조4866억원이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상위 54개사가 총 선수금의 96.3%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의 50.6%인 2조271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으로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자본금 15억원으로 상향)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기존 등록업체 중심으로 자본금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상조상품에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을 끼워 팔려면 각각의 계약이 별개로 체결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상품 계약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도록 했다.

또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은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상조업체가 장기적으로 재무 상황이 부실해져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미제출이나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개별 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36.67 (+9.33)
- ↑ 금리 (국고채 3년) 2.15% (+0.02)
- ↑ 코스닥 791.95 (+29.74)
- ↓ 환율 (USD) 1074.10원 (-2.00)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완료

광주테크노파크, 최첨단 장비 35종 완비 4차산업 기업 지원

광주테크노파크가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업지원활동에 나선다.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479억(국비 352억, 지방비104억, 민자23억)원이 투입된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기술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에 필요한 애로기술과 전문기 자문 등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과 AR, IR 등 4차산업 혁명의 선봉에서 지역 기업지원을 위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의료용소재 제조기술을 보유한 치과용 생체소재부품지원센터와 함께 3D의료 중심의 고가 3D프린팅 장비로 설계부터 메탈과 풀칼라, 대형프린팅 제작 및 후처리까지 지원한다.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우리 지역에 3D융합관련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4차산업관련 기업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3D프린팅부터 VR까지 3D융합관련 최첨단 시설을 지역기업들이 많이 이용해 대표적인 성공사례 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소한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는 현재 기업 15개와 4개 기관이 입주해 3D융합관련 산업육성 및 관련기업을 꾸준히 집적화하면서 4차산업 중심의 외지기업 유치와 함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또 3D솔루션 제작용 스튜디오, 3D광학렌즈 생산용 초정밀 블라스트를 비롯해 VR 콘텐츠 등 생산시설은 물론 휴먼팩터 성능 장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고가 장비와 시설 35종이 구축돼 있다.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는 지역 내 3D프린팅·3D콘텐츠 솔루션 제작부터 VR

한편 센터 입주기업인 (주)스튜디오이온(대표이사 강대일)은 2019년부터 중국 CCTV 방영 예정의 VR드라마 제작으로 올해 320억원을 계약하는 성과를 냈으며 추가로 캐릭터 판권 등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보해양조, 목포 인재 육성 장학금 1700만원 36년간 3568명 지급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최근 목포시 대안동 보해양조 본사에서 전성환 이사장과 장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보해양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보해양조는 수여식을 통해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박민지 학생 등 1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해양조는 목포지역 고등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좋은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난 1981년 보해양조학회가 설립된 이후 36년간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은 총 3568명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34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현철 금호터미널 대표 사장 승진

금호아시아나 임원 인사

금호고과 전남대 공대를 졸업한 김전무는 광주시 생활체육회 이사, 녹색서구 21협의회 위원, 광주상의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대내·외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사장 2명, 대표이사 전보 및 선임 3명, 부사장 3명, 전무 8명, 상무 22명 등 총 38명의 임원에 대해 인사를 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7일 금호터미널 김현철(56·사진) 대표이사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018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1986년 금호그룹 비서실에 입사, 그룹 홍보실과 금호고속 관리팀 등을 거친 김사장은 향토기업인 금호 내에서 전문 '홍보맨'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로 2006년 금호터미널 이사로 승진한 뒤 7년 만에 부사장이자 올라 초고속 승진했다.



“전안법 폐지해달라” 靑 청원 20만명

<전자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비용 소상공인 부담...개정안 계류에 내년 시행 앞둬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 등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분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친기자로 가방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

가맹점 1만5천개 늘어 17만개...편의점·한식·치킨집이 절반

치킨집의 지난해 가맹점당 평균매출액이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을 해 편의점의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도매업·서비스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은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도매업·서비스업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개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 수는 17만개로 전년 대비 9.4%(1만5000개) 늘었다.

편의점과 한식, 치킨집 등 3대 업종 가


국민연금, 노동시간 단축 내년 50명 채용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 노사는 전 직원이 동참해 일자리를 나누고 내년에 청년 5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

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1, 2급 직원의 임금 양보와 3급 이하 직원의 초고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이뤄진다. 공단은 절감된 재원 17억원 가량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신규직원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0㎡ 건물 : 1,406.04㎡
지상 4층 매매가 50억(보증금 4억, 월임차료 1천9백)
대로변, 수익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48억9천6백만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63㎡ 건물 : 1,828.95㎡
지상 5층 매매가 29억(보증금 1억7천, 월임차료 1천3백만)
중심상권, 상가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보증금 4억2천, 월차임료 2천6백만)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대출60억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추허가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육적합(광고효과 최상), 대로변, 안집별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당 후 결정

경매 추천 물건

- ★ 도곡면 온천지구 무인텔 (객실 32개)
토지 : 3,289㎡ 건물 : 3,278㎡
감정가 : 3,872,405,000원 최저가 : 2,168,547,000원
- ★ 도곡면 온천지구 무인텔 (객실 32개)
토지 : 3,673㎡ 건물 : 3,037㎡
감정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2,096,760,000원
- ★ 남구 봉선동 근린시설(상권최고)
지하층 지상2층
토지 : 2,281㎡ 건물 : 1,423.7㎡
감정가 : 4,685,404,600원 최저가 : 4,685,404,600
- ★ 삼각동 근린시설(병원시설, 스포츠시설)
지하3층 지상6층
토지 : 3,913.6㎡ 건물 : 22,413.6㎡
감정가 : 18,991,208,000원 최저가 (29%) : 5,445,5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